

---

# 시각예술에서의 리인커네이션의 개념

## Concepts of Reincarnation in Field of Visual Arts

---

오치규  
호서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Chi-Gyu OH(ohchigyu@hanmail.net)

---

### 요약

리인커네이션의 개념은 환생이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밀착된 물질과 정신적 요소를 조형 형식으로 탄생시킨다는 것으로 마치 불교와 도교 사상의 윤회와 같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보잘 것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오브제는 빛날 수 있으며 이런 윤회관은 물질에 대한 새로운 예술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리인커네이션은 물질과 의미들의 조형적가능성이며 예술의 분자로서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리인커네이션적 사고로 활발히 활동한 그룹은 팝아트이며 그 중심에 앤디워홀이 있다. 워홀은 예술과 삶을 이분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리인커네이션적 발상과 윤회를 시도했다. 팝아트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디자인과 광고에서 실험적인 리인커네이션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문화사회는 인터넷과 디지털의 매체가 리인커네이션적 사고와 활동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그런 리인커네이션은 예술의 보편적 철학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실천적 대안으로서의 리인커네이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물질이라는 오브제를 자유롭게 차용하고 변형시키는 새로운 조형시대를 예고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그러한 즐거움을 기꺼이 즐겨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환생 | 시각예술 | 개념 |

### Abstract

Reincarnation, literally means "to be made flesh again". It is a mystical belief that the soul lives again in a new body after death. In this study, both material and spiritual elements are reincarnated in the form of the formative art in our life. This is similar to the notion of transmigration of the souls in Buddhism and Taoism.

Even a work of low merit can be an artifact when we give a new meaning and value through the reincarnation. Reincarnation opens another dimension in the formative art and it can be a new source of energy. Andy Warhol, who is a central figure in the pop art movement, seems to have an idea of reincarnation in the base of his work. In Korea, there are many experimental arts in design and advertising which shows reincarnation.

In the modern society, the activity and mind of reincarnation have been enhanced through Internet and digital medium and people consider reincarnation as a universal philosophy in the art. Especially, the reincarnation as a continuum of design has many implementations. Now the object will be freely adopted, and transformed and it will open a new age in the formative art. We should be ready to enjoy the arts.

■ keyword : | Reincarnation | Visual Arts | Concepts |

## I. 서론

예술과 조형의 개념을 우리는 불변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성과 미학의 개념은 불변성이 아닌 생명체처럼 유기성을 가지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예술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조형이라는 형태는 끊임없이 변모해왔으며, 소재와 재료는 탄생과 소멸의 반복성을 거듭하고 있다. 시간적 축이 현대로 옮겨오면 올수록 내용과 형식에서 환생과 윤회적 성격은 뚜렷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 주체가 되는 조형의 오브제들을 불교의 윤회적 세계관과 도교의 자연적 순환성으로 설명하며 이러한 환생을 리인커네이션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리인커네이션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한 팝아트의 앤디워홀과 다른 작가들의 작품 추적으로 리인커네이션의 의미를 명확하게 한다.

도래할 디지털시대의 조형은 리인커네이션적 경향이 뚜렷해질 것이며, 보편적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리인커네이션의 연구는 조형의 새로운 윤회 가능성과 예술의 개념 정립에 필요할 것이다.

## II. 리인커네이션의 개념 이해

### 1. 리인커네이션의 의미

리인커네이션의 어원은 re+incarnation으로 re는 '다시'이며 incarnate '정신적인 것이 육체를 입다'이다. 즉 reincarnation은 다시 살아남이며 새로운 '환생'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 형상이 통시적 세계와 공시적 세계에서 다른 형상으로 바뀐다는 필연성으로 이러한 형태적 변화는 정신적 가치의 재탄생을 의미한다. 유사용어로는 윤회; 재생; 화신; 환희; 영혼재래설; 재창조로 표현되어 질 수 있다.

따라서 리인커네이션은 인간의 정신이나 영혼이 사후에 새로운 형태의 몸을 비러 새롭게 환생한다는 것으로 인간의 삶 속에서 사물과 정신은 끝없이 이어져갈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사물의 형태와 인간의 정신적 질서의 관계 설정인 동시에 조형원형의 단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2. 불교에서의 윤회적 해석

불교는 환생을 열반계로부터의 부활을 의미하며 불교철학은 윤회와 환생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다. 윤회와 환생은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교리에서도 윤회를 인정하고 있다. 물론 불교의 윤회 이론과 타종교의 윤회이론에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 차이보다 재탄생에 대한 종교적 해석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여기서 불교에서 윤회의 인정을 굳이 과학적 방법으로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윤회는 불교의 중추를 이루는 중요한 교리이며 모든 생명체는 윤회하며 이는 식(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식(識)을 갖고 있는 것은 윤회 한다는 주연관계가 보편타당한 진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회의 사실성을 확신하게 해주는 실마리는 바로 연기(緣起)의 사각에 있다.

연기란 간단히 말해 '엮혀서 발생함'을 의미하며 세상만사가 엮혀서 발생 한다는 것으로 홀로 발생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긴 막대기와 짧은 막대기의 비교와 판단은 생각 속에 떠올랐던 짧음과 눈앞에 보여 진 길이 있으며, 더 긴 막대기와 비교하며 짧게 생각되고, 더 짧은 막대기와 비교하면 길어진다는 것이다. 그 어떠한 것도 홀로 나타나지 않으며 언제나 고기(孤起)하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연기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의 윤회적 해석도 공간적 조망과 시간적 조망으로 설명될 수 있다. 공간적 조망은 지구상에 인간 이외의 모든 종(種)들이 서로 축생계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머물다가 파괴되고 텅 빈 상태의 것이 되고 새롭게 성립되고 다시 머무는 순환이 되풀이 된다는 것이다. 영원한 것은 없으며, 각각의 탄생은 언젠가 소진되며 다른 곳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다.

시간적 조망은 십이연기설로 설명할 수 있는데 모든 사물은 우주 도처에서 탄생하여 언젠가는 떠나가는 윤회를 무한히 되풀이 한다는 것이다. 연기의 법칙은 윤회하는 생명체의 전생과 현생, 내생의 삶에 적용하여 설명한 가르침인 것이다. 전생을 떠나는 순간 전생은

의미를 다한 것이며 기억하지 못하므로 새롭게 환생할 수 있는 것이다. 전혀 새로운 사물로 환생되었을 때 새로운 가치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불교에서의 사물에 대한 리인커네이션의 세계관은 이승과 저승, 삶과 죽음을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윤회성의 인정이다.

철학적 윤회관은 조형세계의 새로운 창조적 에너지로서 조명할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3. 도교에서의 물화(物化)적 해석

도교의 핵심사상이 인간의 영생을 회구하는 것이라는 데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며 영생의 회구함은 물화, 전생, 환생의 사상이다.

「천(天)의 즐거움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삶은 마치 천의 운행과 같고 그 죽음은 마치 物의 변화와 같다. 고요해 있을 때에는 음기와 같이 활동하고, 움직일 때는 양기와 같이 파동한다[1],」라는 것이다.

물화의 그 직접적인 내용은 物의 변화라는 것으로 物은 존재자 일반에서 발생하는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物은 사(死)가 그대로 공무(空無)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생과 사후의 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변화에 따라서 物이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고 곧 찾아오게 될 미지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을 뿐으로 미래의 어떠한 모습을 미리 알지 못하는 물론 과거에 어떠한 物에서 변화하여 지금의 모습되었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物이 그 物로서는 死를 거침으로써 곧 다른 物로 환생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물화에 의한 전생이 기(氣)가 모임으로써 어떤 物이 태어나고 기가 흩어짐으로써 그 物을 구성하고 있던 기는 소멸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른 곳에 모여서 다른 物이 되어 환생한다는 것이라면 이 전생은 단지 한번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를 향해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현상일 것이다.

만물은 어느 것이나 내부에 생명성을 머금고 있으며 어떠한 物에서 다른 物로 다른 모습으로 상호 환생하

로 시작과 끝은 연결고리와도 같은 것으로 윤회는 영원한 반복을 의미한다.

환생은 영원한 과거에서 영원한 미래를 향해 무한히 윤회하고 그 윤회에는 영생의 즐거움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도교는 자연과 物을 정복과 지배로 보지 않으며 불교에서처럼 고통과 아픔이 아닌 긍정적이며 친근한 시선으로 바라보기때문에 변화에 대해서는 즐거움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사물에 대한 이런 환상적 세계관은 도교적 철학이 우리들의 미학과 예술관에서 재조명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4. 리인커네이션의 미학적 이해

현대 미술의 시작은 다양한 오브제와 기법들의 출현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원재료의 개발에도 있지만 우리들이 사용해 오면 재료의 물성 그 자체가 변화되었다기보다 기존의 재료를 조립하고 집합시킴으로서 미학적 환생을 시도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개념적 변화이며 추상적 개념의 보편적 형상이다. 평면적인 것은 물론 삼차원적 조형적 표현도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이고 잡다한 것들이 선택되어 작품으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뒤뷔페에서 피카소, 뒤샹에 이르렀고 앓상블라주라는 폐품문화가 추상 표현주의 형식으로 발전했다. 라우센버그는 이불, 신문조각, 잡지 등을 주저 없이 보여 주었으며 일찍부터 포스터나 광고 전단 등을 풀라쥬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의 경험 환기시키는 재료들을 거부감 없이 도입하였다.

즉, 일상생활의 하찮은 것들에 생명을 부여하였으며 예술로서의 환생적 가치를 보여주었다. 모든 사물은 오브제가 될 수 있으며 물질은 나름대로의 미학적 가치를 가지며 물질의 환생은 의미의 환생인 동시에 정신의 환생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재스퍼 존스는 채색된 브론즈에서 평범한 맥주캔을 선택하여 그것을 청동으로 주조함으로써 일상적인 것을 불변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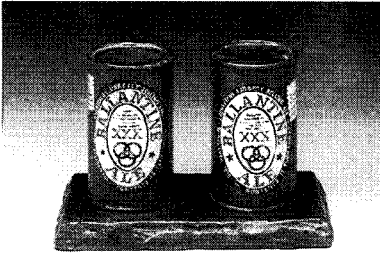


그림 1. 제스퍼 존스, PaintedBronze, 1960

이것은 끊임없이 유회하는 물질에 대한 시간적 멈춤을 의식한 것이며 의식적으로 시간의 순간성을 표현함으로써 유회를 인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오브제들의 미학적 환생을 가장 강렬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팝아트이며 그 중심적 인물이 앤디 워홀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 III. 팝아트 앤디와홀의 일상성의 환생

앤디워홀은 예술의 경계를 확장시킴에 있어 주위의 물질과 인간을 환생시키는 기법을 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미국사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무엇이든 예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상적인 것이 오브제가 된다는 것은 삶과 예술의 이분법을 극복하려는 의지인 것으로 20세기의 사회 환경적 변화가 당시 예술개념에 투영된 것이다.

미학을 일상적 삶에 끌어들이는 오히려 인간의 일상적 삶의 집착성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굳이 작가의 손과 의식적 철학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 앤디워홀의 예술에 대한 해석은 모든 사물의 환생에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자하는 시대적 시선인 것이다.

“나는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면 무엇이든 예술의 소재가 될 수 있다”[2],고 선언한 앤디워홀은 예술을 자연스럽게 솔직하게 표현하였고 이것으로 예술의 자본주의 가능성의 제시이기도 했다.

워홀의 소재 선택은 인물, 자연, 명화, 일상용품 등을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림 2. 앤디 워홀, Marilyn Monroe, 1967

가장 유명한 ‘마를린먼로’는 화려하게 마를린 먼로를 환생시켰으며 그 환생은 우리에게 마치 저승과 이승의 경계를 넘나드는 무당과 같은 마력을 보여주고 있다. 코카콜라병과 캔벨 토마토 주스 상자, 포트폴리오의 표지 등도 오브제가 되어 모든 물질과 개념들의 미학적 환생이 가능함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죽음, 공포와 같은 심리적 심상은 ‘전기의자’, ‘자동차 사고’, ‘추락한 항공기’ 등에 심리적 리얼리티를 환생시키고 있으며 자신의 자화상에도 시공간성을 초월하려는 워홀의 꿈을 느끼게 한다.

워홀의 영상작업인 영화는 일상생활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의식적인 연출을 하지 않는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언제든지 삶의 환생과 유회를 반복할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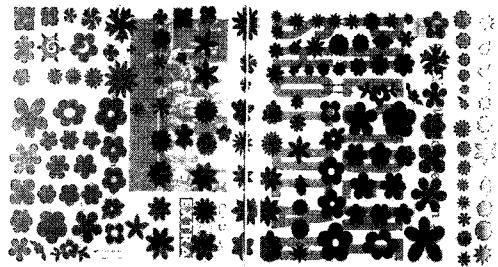


그림 3. 앤디 워홀, 플래시-(포트폴리오), 1968

이와 같이 워홀의 작품에 리인커네이션적 성격이 가능했던 것은 이미지를 반복해서 재현할 수 있는 실크스

크린의 기법과도 무관하지 않으며 기계에 의한 환생이 야 말로 리인커네이션의 보편성의 시도로 볼 수 있다.

최근 우리주변의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들은 예술의 일상성과 더불어 앞으로의 다양하게 표현될 리인커네이션을 예언하고 있다.

#### IV. 리인커네이션의 유희성

앤디워홀과 유사성을 가진 리히텐슈타인은 주로 만화의 형식과 주제 기법들을 그대로 재현하였다. 익숙한 만화의 장면들을 단순화와 대형스케일로 환생시켜 새로운 조형으로 표현하였다.

자코메티의 철학자 야나이 하라를 모델로 한 드로잉은 신문이나 잡지에 그려짐으로서 유명해졌으며, 바탕이 된 신문과 잡지 조각은 드로잉 이상의 역할을 함으로서 재료 그 이상이 되었다.



그림 4. 자코메티, 머리들, 1959

위 작품에서 자코메티는 사람들의 상체로 되어진 잡지위에 펜으로 다섯명의 두상을 그려 넣으므로 하여 마치 실제 사진들과 어우러져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된듯하고 짜인도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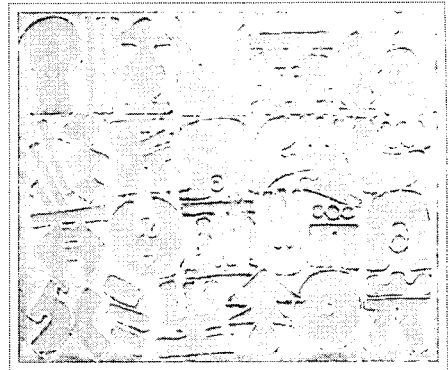


그림 5. 이응노, 문자추상

1960년 우리나라에서도 이응노와 남관 등은 한지와 신문지, 천 등으로 콜라주 기법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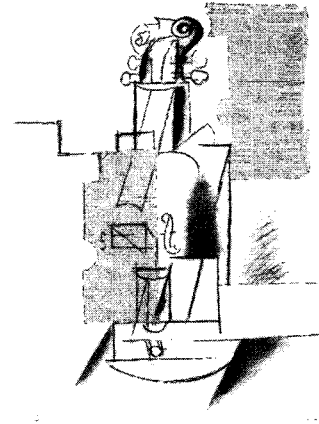


그림 6. 피카소, Violin, 1913

피카소는 Violin, 1913에서 신문을 이용한 콜라주로 신문위에 콘테로 악기를 그려 콘테 만으로 그렸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작품을 완성하였다. 그의 작품에서는 가끔 악기의 그림과 실제 악보를 콜라주(Violin and Sheet Music, 1912)하여 보여 주었다.

포스터 작가인 오치규는 2005년 동경에서 열린 개인전(NIHONBASI DIC COLOR SQUARE)에서 이미 사용된 포스터 위에 새롭게 포스터를 제작한 기법을 선보이면서 처음으로 리인커네이션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림 7. 오치규, 자연보호, 2004

이 기법은 페 포스터를 활용한 것으로 일회성인 포스터의 생명력을 연장시키려는 것으로 리인커네이션의 철학과 개념을 의식한 조형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그림 8. 오치규, 자연보호, 2004

디자이너가 혼신의 힘을 다해 제작한 포스터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지만 대량으로 복제되고 배포하는 인쇄매체의 한계성을 극복하려는 의도가 있다.

또한 원작가의 작품에 본인의 그림을 그리고 칠함으로써 마치 불교철학의 연기(緣起)처럼 새로운 생명력을 탄생시키고자 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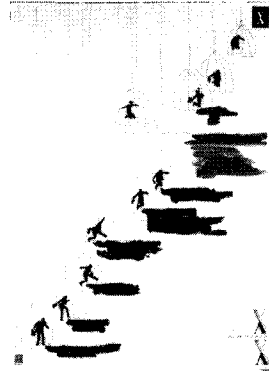


그림 9. 오치규, 비상,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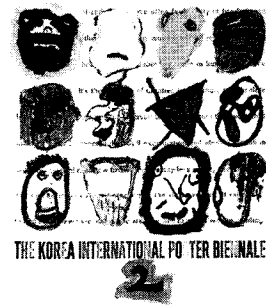


그림 10. 오치규, 얼굴, 2004

어린이들이 폐품을 이용한 조형작품들도 리인커네이션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남아빠진 운동화나 장난감을 새로운 예술품으로 제작한 예는 최근 인터넷과 같은 매체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를 '리사이클 아트'라고 칭하고 있다. 이러한 인기와 관심은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한다.

서양화가 이동기는 테스카 오사무의 아톰과 미키마우스를 합성한 캐릭터를 탄생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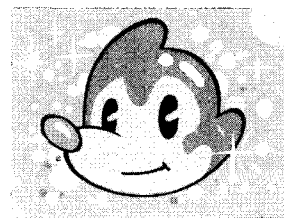


그림 11. 이동기, 아톰마우스

작품명을 '아토마우스'라 칭하였으며 이와 같은 오브제와 오브제의 결합과 변종은 무한한 환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손동현은 배트맨과 로보캡 등의 캐릭터를 동양화의 물감으로 그렸으며 한자와 낙관을 화면에 그려 넣음으로서 주목을 받았는데 조형적 유희성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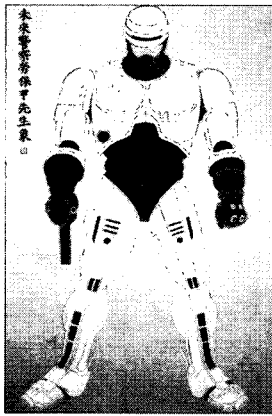


그림 12. 손동현, 로보캡

무라카미 다카시의 루이뷔통의 가방디자인은 일본전통 문양인 브랜드의 패턴 위에 캐릭터와 화려한 컬러를 사용하여 주목을 받았다.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대를 초월한 리인커네이션의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디자인이나 광고는 이러한 컨셉이 트렌드로 등장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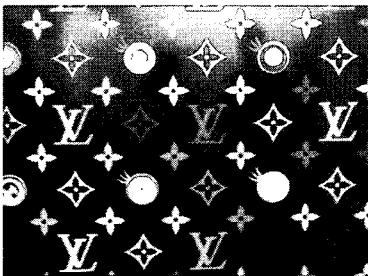


그림 13. 무라카미 다카시, 루이뷔통

## V. 지속가능한 디자인과 리인커네이션

오늘날의 모든 디자인 영역들은 그 대상물이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생태학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진보적 디자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유기론적 견해에 기초하여 환경과 인간의 물질에 대한 미래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만약 인간이 건전한 문화소비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위협받을 수 있으며 이는 생태학적 문제가 단순한 물질의 생산과 소비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화적 삶에도 깊이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물질의 전생평가(LCA, Life Cycle Analysis)의 의미는 제품의 탄생에서 소멸까지 전생(全生)에 걸친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연결성은 표피적인 것이 아닌 종합적 잠재성을 가지므로 인류의 종교와 예술적 활동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질의 등장과 지속성은 새로운 문화질서와 가치의 탄생으로 파생되어짐이 디자인의 본질적 특질이므로 디자인은 단순한 전생평가의 사이클을 넘어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철학적 배경과 무관 하지 않게 최근 디자인에서는 지속가능한 디자인(Sustainable Design)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사상의 중심의 핵은 친환경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친환경디자인은 1992년 6월 세계 각국정상들이 지구의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과 개발에 관한 학으로 하는 리인커네이션을 예술과 디자인에서 '리우선언'에 합의함으로써 디자인의 흐름을 크게 변화시켰다. 재활용디자인, 재사용디자인, 수명연장디자인, 소재순수성을 높이는 디자인등과 같은 기본철학이 제시 되었다.

지속가능한 디자인은 미래의 디자인기술이 생물학적 다양성과 환경적 통합성을 유지하고 대지, 물, 토양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인간의 무분별한 이용성에 의한 영향들을 최소화시킴이며 인간적 가공으로의 문제를 감소하고자 함이다.

인위적요소의 최소화와 자연적요소의 강조는 예술과 디자인의 물질적 재료나 소재의 문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철학적 사고와 의식이 선행되어야 한

다. 이런 의미에서 리인커네이션은 단순한 물질의 환생을 뛰어넘는 것으로 물질의 변용만이 아닌 물질에 내재된 또 다른 가치의 발견이며 생명력이 다한 전생(前生)으로부터의 윤회 즉, 리인커네이션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리인커네이션은 시작과 끝의 경계가 아닌 영원한 연속성의 가능성에 그 본질적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다.

## VI. 결론

디지털 시대의 예술과 디자인의 개념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예술과 디자인의 대중성은 보편화 되어가고 있다.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들은 소재와 재료가 되어 언제든지 대중문화와 예술의 메시지로 환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물질이 새롭게 차용되고 변용되어 재탄생함을 리인커네이션이라 한다. 리인커네이션은 도교와 불교의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팝아트의 엔드유흔의 철학에서도 그 특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디자인은 친환경디자인의 실천적 대안으로서 지속가능한 디자인이 주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해결방법의 한 아이디어로서 리인커네이션적 대입은 쉽게 설명될 수 있다. 한 물질의 탄생과 소멸은 자연과의 공생과 상생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무한한 생명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시각디자인에서의 이러한 오브제의 사용과 기법들은 시각언어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건강한 대중문화로서의 발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시각매체로서의 역할도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무한한 생명력과 연장성을 철학으로 하는 리인커네이션을 예술과 디자인에서 새로운 창조적 에너지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수많은 환생의 가치를 탄생시켜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池田知久, "도구가 및 도교에 있어서 물화전생윤회, 도교학연구집", 대구대학교, p.5, 1994.
- [2] G. Berg, "Nothing to Lose," Cahiers du Cinema, p.47, 1967.
- [3] 도현우, 불교·윤회관의 고찰, 카톨릭대학원, 2001.
- [4] Gyorgy Kepes, *Language of vision*, paul theobald and company, 1967.
- [5] 金原省吾, 東洋美術, 河出書房, 1955.
- [7] 董其昌, 변영섭, 畫眼, 시공사, 2003.

## 저자 소개

오 치 규(Chi-Gyu Oh)

증신회원



- 2000년 : 일본 니혼대학 예술 학 연구과 박사과정(예술학박사)
  - 현재 : 호서대학교 시각디자인 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시각디자인, 문화콘 텐츠, 디자인이론, 컨셉디자인